

구약성서에 나타난 연대 기록 방법에 대한 바른 이해

김영진*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연대”(年代)(Chronology)를 결정하는 것이다. 역사학에 있어서 ‘연대’는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¹⁾ 그러나 고대 근동 역사 연구에 있어서 연대를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구약성서 시대의 연대를 재구성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대에 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또 기록되어 있더라도 오늘날의 과학적인 연대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대는 시간적 순서를 결정하는 것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달력의 종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혹은 제1성전 시대³⁾의 연대를 재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史料)는 구약성서이기 때문에 사료로서 구약성서의 특성, 특히 연대를 기록하는 방법을 바로 이해할 때만이 고대 이스라엘의 연대를 비교

* 연세대 강사, 구약학(고대 근동 및 이스라엘 역사).

1) E.R.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A Reconstruction of the Chronology of the Kingdoms of Israel and Judah*, 3rd Edition, Grand Rapids, 1984, p. 1; H. Tadmor, "Chronology," *Encyclopedia Miqra'it* 4, cols. 261-263 (Hebrew).

2) G. Galil, *The Chronology of the Kings of Israel & Judah*, Leiden, 1996, p. 1. 브리태니카 사전에 의하면 연대(chronolog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y method used to order time and to place events in the sequence in which they occurred. The systems of chronology used to record human histor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calendar systems, vary in scope, accuracy, and method according to the purpose, degree of sophistication, and skills of the peoples using them."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연대 결정이 어려운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느 달 부터 신년으로 지켰는가 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메소포타미아처럼 Nisan월 1일을 신년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Tishri월 1일을 신년으로 지켰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Tishri월(아홉째 달)에서 Nisan월(정월)로 바꾸었는가 하는 모든 문제를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스라엘 학자들은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용어 대신에 ‘제1성전 시대의 역사’(주전 1550-515년) 혹은 ‘제2성전 시대의 역사’(주전 515-주후 70년)로 시대를 구분한다.

적 정확히 확정할 수 있다. 구약성서는 왕의 즉위나 통치 기간을 표시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기록할 때 일정한 양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의 즉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בשנת מלכו*나 *בשנת מלכותו*를 「개역개정판」에서 각각 “즉위한 원년”(왕하 25:23)과 “즉위 원년”(렘 52:31)으로 번역하였으나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한글 사전에서 “원년”(元年)을 “임금이 즉위한 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지만⁴⁾ 역사학에서는 “원년”과 “즉위년”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한다.⁵⁾ 고대 근동에서도 즉위년과 원년을 구별하기 때문에 “즉위한 원년” 혹은 “즉위 원년”은 어색한 표현이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원년을 나타내는 표현 *בשנת אחת לכורש*(고레스 왕 원년)-이 있기 때문에 *בשנת מלכו*나 *בשנת מלכותו*에 대한 번역을 재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연대 기록 방법을 메소포타미아의 사료를 근거로 바르게 이해하고, 특히 *בשנת מלכו* 나 *בשנת מלכות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우리말 번역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연대 기록 방법 및 문학적 양식이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으며, 앗수르-바빌로니아-페르시아 제국의 기록들이 구약성서에 기록된 사건의 (비교적) 정확한 연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1. 구약성서에 나타난 연대 기록 방식

구약성서의 사가들은 역사 사건의 연대를 기록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즉 공시연대(共時年代; Synchronistic Chronology)와 상대연대(相對年代; Relative Chronology)와 일반적인 연대 표시이다. 공시연대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 기록의 독특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반하여 상대연대는 고대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에스겔과 역대기서에 주로 나타난다.⁶⁾

4)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1992, p. 3186;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1982, p. 2732.

5) 즉위년과 원년의 구별은 청원법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다.

6) 구약성서에 나타난 연대기 기록 방법에 대해서는 E.R. Thiel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A Reconstruction of the Chronology of the Kingdoms of Israel and Judah*와 H. Tadmor, "The Chronology of the First Temple Period: A Pres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Sources," *World History of Jewish Peoples* 4/1, eds. A. Malamat and I. Eph'al, Jerusalem, 1979, pp. 44-60, 318-320; W.H. Barnes, *Studies in the Chronology of the Divided Monarchy of Israel*, Atlanta, 1991.

1.1. 왕의 즉위를 표현하는 방법-공시연대

공시연대는 어떤 사건의 연대를 표시할 때 동시대의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연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특히 공시연대 방법은 신명기 사가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즉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⁷⁾ 즉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즉위 한 사건을 기록 할 때 그 연대를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의 연도와 비교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text{בשנת } N \text{ למלך } A \text{ בן-} B \text{ מלך } C \text{ על־יהודה}$ (“B의 아들 A가 왕으로 있는 지 N년에 C가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왕상 15:1, 9, 33, 16:8 등). 예를 들면 아비얌의 즉위에 대하여

$\text{בשנת שמונה עשרה למלך ירבעם בן־נבט מלך אבִיָּם על־יהוד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1세)의 통치 연도와 비교하는 것이다(왕상 15:1). 이스라엘 왕 엘라의 즉위에 대해서도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육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년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왕상 16:8)이라고 유다 왕 아사 왕의 연대와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는 공시연대 방식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끔 비교하는 두 연대가 성서 내에서뿐만 아니라 성서 밖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앗수르의 역사 기록을 통하여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면 구약성서의 연대 기록과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왕하 18:1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왕하 17:1에 의하면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호세아가 즉위한 해는 주전 731/30년(722/1+9)이며 히스기야의 즉위 한 해는 주전 728/7년이다. 그런데 왕하 18:13에 의하면 히스기야 제 14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였다. 성서의 기록을 근거로 연대를 산정 할 때 산헤립의 유다 침공 연대가 주전 714/3년이 된다. 성서의 상대 연대를 근거로 할 때 산헤립의 침공은 산헤립이 아직 앗수르 제국의 왕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 하면 그런데 앗수르 제국의 연대기에 의하면 산헤립은 주전 705년에 왕으로 즉위하여 그의 통치 제5년, 즉 주전 705년에 유다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내부에서도 연대 기록사이의 모순이 발견된다. 왕하 8:25에

7) J.H. Hayes and P.K. Hooker, *A New Chronology for the Kings of Israel and Judah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ical History and Literature*, Atlanta, 1988, pp. 10-11. 그러나 이러한 상대 연대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연대기를 재구성할 때 문제점이 된다.

의하면 아하시야는 요람 왕 제 12년에 즉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왕하 9:29에서는 요람 왕 11년에 즉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한 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즉위가 유다 왕 아사 제 31년이었으며 12년간 통치하였다(왕상 16:23). 만약 이 기록이 맞는다면 오므리의 통치는 41년간 통치한 아사 왕 다음에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왕상 16:28-29에 의하면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것은 아사 왕 제3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만약 왕상 16장의 기록이 맞는다면 오므리의 통치기간은 12년이 아니라 7년이 된다.

1.2. 상대연대

상대연대는 고대 가장 간단하면서도 널리 알려진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⁸⁾ 상대연대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몇 년 후에 생긴 일이다’라는 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왕상 6장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을 기록할 때에도 **וַיְהִי בִשְׁמוֹנִים שָׁנָה וָאַרְבַּע מֵאוֹת שָׁנָה לְצֵאת בְּנֵי-יִשְׂרָאֵל מֵאֶרֶץ-מִצְרָיִם**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그 연대를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을 기록하면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부터 연수를 계산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겔 1:1의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밭장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해인 주전 598/7년부터 30년이 지난 해라는 뜻이다. 따라서 겔 1:1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568/7년이 된다.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아는 큰 사건을 중심으로 연대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연대 방식을 통하여 구약성서 사가에게 있어서, 특히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사가에 있어서 “출애굽”과 “바빌로니아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⁹⁾

1.3. 일반적인 연대 표시법

구약성서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은 “RN 왕 N년”이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8) E.J. Bickerman, *Chronology of the Ancient World*, London, 1980, p. 62.

9) 신명기 사가의 마지막 편집 연대가 주전 6세기 후반이며 에스겔서는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편 집되었다고 주장한다. M. Greenberg, *Ezekiel 1-20*, New York, 1983, pp. 12-17; M. Weinfeld, *Deuteronomy and Deuteronomistic Schools*, Oxford, 1972, pp. 1-9, esp. 7.

히브리어	한글번역	예
RN שְׁנָה לְמֶלֶךְ N בְּ	“RN 왕 제N년에”	왕상 14:25, 왕하 18:14
RN הָיָה בְּN שְׁנָה לְמֶלֶךְ ?	“RN 왕 제N년”	왕하 12:6(7), 18:9, 22:3
בְּשָׁנָה N לְמֶלְכֹו	“그의 통치 N년”	왕하 24:12

이 양식을 더 세분하면 위 표에서 보듯이 세 가지 다양한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상 14:25의 시삭의 침략은 르호보암 왕 제 5년에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참고 왕하 15:19, 16:7-9). 왕하 12:6(7)에 의하면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의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즉 성전 수리가 요아스 왕 23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왕하 22:3-6는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므슬람의 손자...” 즉 요시아 왕 제18년에 성전 수리 공사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하 18:13에서는 בְּאַרְבַּע עָשָׂר שָׁנָה לְמֶלֶךְ חִזְקִיָּה (“히스기야 왕 제 십사년에”)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왕의 이름을 대신하여 왕을 나타내는 인칭 접미사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여 잡혀 갔을 때를 בְּשָׁנָה שְׁמֹנֶה לְמֶלְכֹו (“그[=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여덟째 해이라”)라고 기록한다(왕하 24:12). 이러한 표현은 왕하 25:1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제 구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 왔을 때를 표시할 때도 בְּשָׁנָה הַחֲמִישִׁיעִית לְמֶלְכֹו (“그의 통치 제 구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스 1:1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놓임을 받는 사건이 בְּשָׁנָה אַחַת לְכוֹרֶשׁ (“고레스 원년”)에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בְּשָׁנָה לְמֶלְכֹו와 בְּשָׁנָה 처럼 숫자 즉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왕하 25:27의 에월모르닥의 통치 연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בְּשָׁנָה לְמֶלְכֹו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왕하 25:27과 평행구인 렘 52:31에서는 בְּשָׁנָה לְמֶלְכֹו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통치 할 때”와 “그가 다스릴 때”이다. 이에 대한 한글 개역 성서와 개역 개정판은 “즉위한 원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표준 새번역을 제외하고는 그 번역이 매우 애매하다.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 연대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스 1:1의 “고레스 원년”(בְּשָׁנָה אַחַת לְכוֹרֶשׁ)과 בְּשָׁנָה לְמֶלְכֹו나 בְּשָׁנָה לְמֶלְכֹו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말로 옮기는데 있어서도 “즉위한 원년”과 “원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글 사전에서 원년(元年)이란 “임금이 즉위한 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약성서에 나타난 בְּשָׁנָה לְמֶלְכֹו나 בְּשָׁנָה אַחַת לְכוֹרֶשׁ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연대기 기록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연대 기록법

앗수르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은 왕의 연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앗수르 제국은 주전 910년부터 612년까지 에포님(Eponym)이라는 연도를 사용하였다. 이 에포님은 리무(*limmu*)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그 해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에포님 연대에는 *limmu* 관직을 가진 사람의 이름과 그의 관직명 그리고 그 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¹⁰⁾ 예를 들면 주전 732년에 해당하는 에포님의 리무 관리의 이름은 나부-벨루-우쭈르(Nabû-belu-ušur)이며 그의 직책은 시메(Simme)의 총독이며 이 해에 다마스커스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에포님 외에도 연대를 기록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산헤립은 자신이 치루었던 전쟁을 기준으로 제위 기간 중의 일을 기록하는가 하면(*girrû*) 사르곤이나 디글랏빌레셋 3세의 경우에는 통치 기간을 *palû*라는 불리는 독특한 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girrû*는 통치 연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1 *girrû*가 통치 1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쟁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 첫번째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 *palû*는 곧 통치 1년과 같다. 앗수르 제국에서 *girrû*와 *palû*의 사용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서기관에 의하여 독특하게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에포님이나 *girrû* 혹은 *palû*를 사용하던 상관없이 언제부터 통치 연한으로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즉 왕의 즉위 연대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왕의 즉위 날로부터 처음 맞이하는 신년 축제까지를 왕의 즉위 연대에 포함하지 않고 이 기간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왕의 즉위한 날로부터 처음 신년 축제를 맞이 전까지의 기간은 이미 전 왕의 즉위 마지막 해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 해를 두 번 혹은 세 번 계산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왕이 즉위해서 처음 신년 축제를 맞이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아카드어로 *reši šarrūti* 혹은 *šurrāt šarrūti*라고 부른다. 즉 “즉위년” 혹은 “즉위 한 해”라는 뜻이다. 이 즉위 한 해는 왕의 연대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즉위 한 해를 지나 처음 맞이하는 Nisan월(정월) 1일부터 즉위 1년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연대 계산법은 앗수르 제국의 왕의 비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전 853년 혹은 85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살만에셀 3세의 ‘Kurkh Monolithis’ 비문에는

10) A. Millard, *The Eponym of the Assyrian Empire 910-612 BC*, SAAS II, Helsinki, 1994.

살만에셀 3세의 즉위 한 해와 즉위 1년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ina šurrā šarrūtija ina mahṛê palēja ša ina kussē šarrūti rabīš ūšibu* ("in my accession year and in my first regnal year, after I nobly ascended the royal throne").¹¹⁾ 또한 에살하돈의 비문에 의하면 *ina rēš šarrūtija ina mahṛê palēja ša ina kussē šurrūti rabīš ūšibu* ("at the beginning of my reign, in my first regnal year, when I took my seat in all majesty upon the royal throne")라고 기록하고 있다.¹²⁾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앗수르 제국에 있어서 왕의 연대 계산법은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이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מְלָכָא בְּשַׁנְתָּא דְּמַלְכָּא에 대한 바른 해석

앗수르 제국이 유년칭호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유년칭호법을 채택했는가 하는 질문을 야기시킨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본다. 즉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Accessional Year 혹은 Postdating System)과 유월(즉위)칭원법(踰月稱元法 혹은 卽位稱元法)(Non-Accessional Year 혹은 Antedating System) 가운데 어느 한 방법을 채택하였을 것으로 본다.¹³⁾ 유년칭원법이란 앞에서 설명한대로 새 왕이 즉위한 날부터 처음 맞이하는 신년 축제까지를 왕의 연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에 유월칭원법이란 즉위한 날부터 그해 마지막 날까지를 즉위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월칭원법을 채택하게 될 경우 한 해가 여러 번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왕상 16:15-20에 의하면 시므리가 유다 왕 아사 27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7일

11) A.K. Grayson, *Assyrian Rulers of the Early First Millennium BC II (858-745 BC), The Royal Inscriptions of Mesopotamia Assyrian Periods Volume 3*, Toronto, 1996, 14 i 14; *Chicago Assyrian Dictionary* Š/2, p. 123.

12) Esarh. 16 Ep. 12:9-11. 이러한 표현은 산헤립의 비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D.D. Luckenbill, *The Annals of Sennacherib, OIP 2*, Chicago, 1924, p. 56:5.

13) M. Cogan, "Chronology," *Anchor Bible Dictionary I*, pp. 1002-1011.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있어서 한정건씨는 Accession-Year System을 우리말로 "즉위년 방식(卽位年 方式)"으로 Postdating System을 "후기 계산법(後期 計算法)"으로 Nonaccession Year System을 "무즉위년 방식(無卽位年 方式)"으로 그리고 Antedating System을 "조기 계산법(早期 計算法)"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하여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과 유월(즉위)칭원법(踰月稱元法 혹은 卽位稱元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문사이의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한국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R. Thiele (한정건 역),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서울, 1990, p. 56; 민병하, "칭원법,"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제22권, 1991, p. 814.

동안 통치하였다. 그 후에 다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만약 유월칭원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아사 왕 27년을 이스라엘에서는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의 통치 연도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은 유년칭원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일부 학자들은 처음 고대 이스라엘은 유월칭원법을 사용하다가 수르 제국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년칭원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¹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의 연대를 계산할 때 유년칭원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מלכות בשנת**라는 표현의 사용이다. 구약성서에 기록된 **מלכות בשנת**나 **מלכות בשנת**은 아카드어 *rēši šarrūti*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이다. 특히 **מלכות בשנת**는 문자적으로 *rēši šarrūti*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신명기 사가가 왕하 25:27을 기록할 때 다른 곳과 달리 숫자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의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מלכות בשנת**라는 표현은 “그의 즉위한 해”라는 의미의 아카드어 (*rēši šarr ūšš*)를 히브리어로 옮겨 적은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מלכות בשנת**나 **מלכות בשנת**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기록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에 관한 기록에만 등장한다. 왕하 25:27은 바빌로니아 왕 에월므로닥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연대 측정법을 채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בשנת אחת לכורש** (“고레스 왕 원년”, 스 1:1)라는 표현은 **מלכות בשנת**나 **מלכות בשנת**가 통치 원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님을 나타내 준다. 그렇다면 **מלכות בשנת**나 **מלכות בשנת** 그리고 **בשנת אחת לכורש**를 어떻게 번역하여야 정확한 번역인가? 이 표현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מלכות בשנת나 **מלכות בשנת** 그리고 **בשנת אחת לכורש**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을 위해서 한국사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사에서도 왕의 칭원법(稱元法) 즉 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 계승한 그해를 전(前) 왕의 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새 왕의 해라고 할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유월칭원법(踰月稱元法 혹은 卽位稱元法)을 사용하여 새 왕이 즉위한 그 해 그 다음 달부터 원년으로 계산하였다.¹⁵⁾ 그러나 고려나 조선시대에서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사용하여 새 왕의 즉위년에도 그대로 전왕(前王)의 연호(年號)를 그대로 사

14) H. Tadmor, "The Chronology of the First Temple Period," pp. 44-60. 틸레는 그의 저서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유월칭원법을 사용하였으나 후에 유년칭원법으로 바뀌었으며, 유다 왕국 초기에는 유년칭원법을 사용하다가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유월칭원법을 채택하였다가 후에 다시 유년칭원법으로 돌아갔다는 복잡한 이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틸레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문서를 찾아 볼 수 없다.

15) 그러나 새로운 왕이 즉위한 그 달부터 원년을 계산하는 방식을 홍월칭원법(躙月稱元法)이라고 한다. 민병하, “칭원법,” p. 814.

용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가운데 태조와 세조와 중종과 같이 반란을 일으킨 왕은 유월칭원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사에서도 유년칭원법을 사용할 때 원년 이전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즉위년’이라 부르고 그 다음해를 ‘원년’이라고 부른다.¹⁶⁾

따라서 스1:1의 **בשנת אחת לכורש**을 “고레스 원년”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른 번역이다. 그러나 공동번역의 스1:1에 대한 설명에서 **בשנת אחת לכורש**을 “왕위에 오른 주전 538년”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레스는 왕권을 잡은 해 즉, 즉위년 (*reši šarr ti*)은 주전 539년이고 고레스 원년 즉 즉위 제 일년은 주전 538년이다. 따라서 주전 538년은 왕위에 오른 해가 아니다. 많은 역사서나 주석서에서 스1:1의 설명에서 이것의 연대를 주전 539년으로 설명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즉위를 계산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실수이다.¹⁷⁾

장 절		왕하 25:27	렘 52:31	스 1:1
성서 본문				
마소라		בשנת מלכו	בשנת מלכותו	בשנת אחת לכורש
성	한글개역	즉위한 원년	즉위 원년	고레스 원년
	한글개역개정	즉위한 원년	즉위 원년	고레스 원년
	공동번역	즉위하던 해에	왕으로 등극하면 서	고레스 제일년
	표준새번역	왕위에 오른 그 해	왕위에 오른 그 해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해

오히려 왕하 25:27이나 렘 52:31에 기록된 **בשנת מלכו**나 **בשנת מלכותו**를 “즉위한 원년” 혹은 “즉위 원년”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의 즉위년에” 혹은 표준 새번역처럼 “왕위에 오른 그 해”이나 공동번역처럼 “즉위하던 해에” 혹은 “왕으로 등극하면 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다.¹⁸⁾ **בשנת מלכו**나 **בשנת מלכותו**는 새 왕이 즉위하여 처음 맞이하는 신년 축제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용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בשנת מלכו**와 **בשנת מלכותו**는 서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공동번역처럼

16) 민병하, “칭원법,” p. 814.

17) L.L. Grabbe,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 Volume One: The Persian and Greek Periods*, Minneapolis, 1992, p. 30. 그라베(Grabbe)는 에스라 1-6장의 배경을 주전 539년부터 515년까지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정확히 말해 에스라 1-6장의 배경은 주전 538년부터 시작된다.

18) Hobbs는 이 구절을 “in the very year he began his reign”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Wiseman의 “...became king” 혹은 Rosenberg의 “in the year of his coronation”이라는 번역이 더 타당하다. T.R. Hobbs, *2 Kings*, Texas, 1985, p. 358; D.J. Wiseman, *1 and 2 Kings*,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1993, p. 317; A.J. Rosenberg, *II Kings A New English Translation*, New York, 1989, p. 438. 공동번역은 **בשנת מלכו**나 **בשנת מלכותו**를 정확히 번역하였으나 **בשנת אחת לכורש**를 “고레스 원년”이라 번역하면서 주전 539년이라고 해설한 것은 고대 근동의 연대 기록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왕하 25:27과 렘 52:31을 각기 다르게 번역하기보다는 같은 말로 번역해야 한다.

4.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מלכו בשנת나 בשנת מלכותו와 RN ל אחת בשנת은 서로 다른 용어이고 또 한국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고 이들을 서로 구별하기 때문에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들 용어를 서로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의 연대 계산법이 유년칭호법이기에 때문에 מלכו בשנת나 בשנת מלכותו를 “그의 즉위년”으로 번역해야 하고 RN ל אחת בשנת를 “RN의 원년”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왕하 25:27과 렘 52:31에 각주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